강 령
聖潔 · 希望 · 自由

성결신문

증생 · 성결 · 신유 · 재림
성결신문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기관지로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1907년부터 이어온 성결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내외 성결가족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개인 신앙성장과 교단부흥을 선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http://www.sknews.org / 대표전화 : 070-7132-0091~5 SUNGKYUL NEWS 2025년 5월 8일 목요일 제607호

선교 119연차대회 및 제104회 정기총회 오는 19일 개최

‘성령의 권능을 힘 입어’ … 다시 성령으로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1907년 사중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119여 년간 영혼구원과 대사회 봉사를 위해 전력해 온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행 1:8)’라는 주제로 오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제119연차대회 및 104회 총회를 개최한다. 원주시 소재 오크밸리리조트 일원에서 진행될 이번 총회는 500여 명의 법정대의원들과 국내외 성결가족, 참관인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부흥과 도약을 다짐하는 총회로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해 118연차대회 중 대의원과 참석자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

첫날은 총회임원들이 순서를 맡아 개회예배가 진행되며 보수신앙과 성결교회 정신을 살리는 성찬예식이 진행된다.

최대 관심사인 임원선거도 첫날 예정되어 있다. △총회장 후보로 현 부총회장인 홍사진 목사(주찬양) △부총회장 후보 기호1번 이종만 목사(생명수샘) 기호2번 이상문 목사(두란노) △장로부총회장 후보 이광섭 장로(성현) △서기 후보 기호1번 이규헌 목사(마포제일), 기호2번 김성은 목사(시흥중앙) △부서기 후보 전승환 목사(장호원반석) △회의록서기 후보 허상범 목사(삶을변화시키는) △회계 후보 한정수 장로(참좋은) △부회계 후보(정헌 장로(답십리)가 후보로 등록했다.

후보들은 저마다의 소신과 공약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선거운동을 펼쳐왔다. 투표는 전자투표기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임원후보들의 당선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총회시 상정되었던 6건의 현장개정 청원서는 1년 간의 법제부 연구를 통해 논의되어진 결과 모두 기각하기로 결의된 만큼 빠른 회무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마다 서면보고로 대치되었던 경과보고 중 의회부서 및 산하기관의 경우는 필요할 경우 해당부서에서 직접 대면보고할 예정이다.

저녁시간에는 연차대회가 예정돼 있다. 큰 종소리와 함께 전문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시작될 연차대회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한 모노드라마와 찬양 기도의 순서로 이어지며, 교단을 위해 헌신한 은퇴 목회자에 대한 찬하식과 이를 계승하려는 목사안수대상자들에게 안수기도로 이어진다. 송정미 사모의 은혜로운 찬양콘서트도 계획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총회준비위 측은 “이번 연차대회를 통해 우리 예성인들이 교단의 자랑스런 사중복음과 역사, 그리고 부흥하는 현재의 모습과 미래시대의 소망이 될 성결교회의 미래 비전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회의기간 중 출석체크는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별도로 영상출석체크를 병행해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104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총회에서는 5월 11, 18일을 총회주일로 지킨다고 공지했다. 제104회 정기총회를 위해 전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총회발전을 위한 헌금순서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성결신학원 총회 파송이사의 건 등 상정된 안건 처리

제6차 실행위원회… 본지 사장에 김종현 장로 선출

제6차 실행위원회가 지난 25일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실행위원회의에선 회순통과를 놓고 부터 신경전이 오고갔다. 성결신학원 총회 파송이사의 건을 먼저 다루느냐 회의순서 마지막에 다루느냐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제시됐다. “임원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정한 순서이니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과 “결의안건 마지막으로 옮겨 여유를 갖고 다루자”는 의견을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질 않아 표결을 통해 성결신학원 총회 파송이사의 건은 결의안건 마지막에 다루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성결대학교 총장 인준의 건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니 안건에서 삭제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총회장은 “이사회를 통해 상정된 총장 선출절차를 문제삼는 것은 학사개입의 여지가 있으니 유념해야한다”고 말했다.

▲성결신학원 이사회가 인준을 요청한 총장후보 정희석 교수 인준 요청의 건을 놓고 실행위원들 간 여러 의견들이 오고 갔다. 한 실행위원은 “부결되어야 한다. 이사장 직무대행의 선출이 현장에 위배된 행위이므로 용인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실행위원도 “자격이 없는 직무대행이 차기 총장을 임명해서 올린 서류이므로 이를 처리한다면 우리 모두가 불법에 동조”하는 것임을 피력하기도 했다.

결국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규정 11조 3항(토의가 원만한 해결이 곤란하다고 보는 때에는 유안 시킬 수 있다)에 따라 차기회의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2면에 이어

영암골

연두색 오월

오월이면 시인이자 수필가였던 피천득이 떠오른다. 오월에 태어나 오월에 떠난 ‘영원한 오월의 소년’으로 그를 아는 사람들 가슴에 남아있다. 그의 수필 ‘오월’은 이렇게 시작된다.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한 스물한 살의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 있는 비취가락지다. 오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오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비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오월을 이처럼 맑고 신선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피천득 말고 또 누가 있을까?

5월의 봄 동산은 연산홍 철쭉이 지천으로 피어나 화려함을 자랑한다. 그리고 가로수길이나 숲속은 온통 생명으로 충만한 연두색이다. 푸르름이 아직 여물지 못해 수줍은 연두색 오월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한다.

연두색 오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현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쉽게도 Broken Family(가정 파괴) 현상이다. 무너져 내리는 가정들을 보면서 5월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세우기 운동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하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과 훈련이 뒤따라야 한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시 52:8) 라 했다. 감람나무(올리브)는 평화와 승리의 상징이며, 그리고 부유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푸른 감람나무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성전에 뿌리내려지는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꿈꾸는 오월이면 좋겠다.

관악산 끝자락을 끼고있는 우리 동네 오월은 연두색과 함께 아카시아 향기로 시작된다. 어둠이 밀려간 새벽이면 아카시아 향기에 취하고, 바람이라도 불면 아득한 세계. 연두색 숲속으로 들어가 뚝뚝 떨어지는 생명 가득한 연두색으로 나를 채우고 물들여 가는 오월, 생각만 해도 행복해진다.

‘신록을 바라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즐겁다. 내 나이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오월에 속해있다.’라던 피천득의 오월이 우리의 오월이라면 참 좋겠다.

아!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계절의 여왕 오월이다.

淸水 ehc3s@hanmail.net